

김내성 후기소설 『애인』에 나타난 욕망과 윤리

김현주*

1. 들어가는 말
2.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윤리의 충돌
 - 2-1. 애욕의 철학자의 생활철학
 - 2-2. 명동형 인물의 일부일처제에 대한 항거
 - 2-3. 성실한 도덕주의자의 인생철학
3. 욕망의 이상화
 - 3-1. 남성의 횡포에 대응하는 자매에
 - 3-2. 낭만적 사랑의 순교자
4. 맺음말

국문요약

1950년대는 전쟁이라는 물리적인 악조건 외에도 실존의 불안, 미국 문화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향락적 이기주의의 팽배 등으로 사회적 윤리와 욕망의 부조화가 극심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창작된 김내성의 『애인』은 그의 후기소설로서, 전후 젊은 지식인 사이에 싹트던 연애에 대한 욕망을 개인의 자유 의지와 사회적 윤리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애욕의 철학자, 명동형 인물, 성실한 도덕주의자 등의 ‘자안’적인 인물을 통해 현실을 재현함으로써 연애나 성적 욕망을 가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면서도, ‘출란적’ 인물을 통해 드러난 가족을 둘러싼 제도나 사회적 윤리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자매애의 형성과 낭만적 사랑의 순교로 맺어지는 결말 구조는 가족 내에서 남녀의 성별 위계화와 성적 영역의 분할을 기획하고 있던 지배담론과 배치된다. 이런 결말 구조는 축첩이나 남성의 애욕만을 용인하는 가부장적인 사회 윤리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들이 자매애로 유대함으로써 가부장적 사회 윤리의 모순을 폭로하고 있다. 또한 근대적 가치의 분열과 혼란을 제시함으로써 당대 젊은 지식인의 삶 자체가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세계인식에 기대 있음을 드러낸다. 한편 사랑의 감정과

* 연세대 학부대학 교육전문연구원

성적 욕망을 지닌 이성(理性)적인 연인이 가족 제도의 제약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재현방식은 일부일처주의 가족제도조차도 인권의 법적 보호망이 되지 못하는 현실세계에 대한 역설이다.

요컨대 『애인』은 동시대의 다른 대중작품들과 달리, 이 작품은 개인의 욕망을 단순히 거부장적 제도라는 지배담론의 틀 속에 귀속되지 않으면서도 그 시대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상을 다양하면서도 심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이성이 있다. 즉 양가적인 감정구조를 드러내는 대중서사 방식을 취하면서도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사물화 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현상을 세계 파악의 중요한 단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미적 모더니티에의 지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김내성, 『애인』, 자인, 줄렌, 감정구조, 타협적 균형, 자매애, 낭만적 사랑의 순교, 절대성, 부정, 미적 모더니티)

1. 들어가는 말

한국전쟁 이후 출판 시장은 극단적으로 위축된다.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토대가 붕괴되어 수용자의 구매능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954년 무렵 일반적인 서적 출판은 발행 종수도 크게 줄었고, 3천부이상 판매되면 베스트셀러로 평가될 정도의 규모였다.¹⁾

1950년대 중반부터 신문이 오늘날의 크기로 1일 4면씩 발행되고 일부 중앙 일간지들이 조석간제를 실시함에 따라, 신문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속도가 급증하게 된다. 특히 ‘야당지’로 분류되던 『경향신문』이 10만부, 『동아일보』가 17만부가 발간될 정도로 신문 매체는 광범위한 독자 기반을 다지게 된다.²⁾ 이처럼 신문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문화적 명맥을 잇고 독서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신문 매체의 소비 확대는 라디오 수신

-
- 1) 전후 출판사와 서적상들이 독자들이 구매력 감소로 할인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양평, 『베스트셀러 이야기』, 우석, 1985, 14쪽, 이임자, 『한국 출판과 베스트셀러: 1883-1996』, 경인문화사, 1998, 98쪽, 백운관·부길만, 『한국출판문화변천사: 도서유통의 성립과 발전』, 타래, 1992, 169-170쪽.
 - 2) 대중교양잡지 『사상계』 역시 1955년 6월 이후 발행부수 8천부를 돌파할 정도로, 1950년대는 문자매체의 급성장기라 할 수 있다.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윤해동 외, 『근대를 읽는다』, 역사비평, 2006, 407쪽.

기 등 다른 대중 매체의 보급이 아직 미약했던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다.³⁾

김내성은 해방 이전에는 탐정소설로 독자층을 확보했지만, 해방 이후에는 정비석과 마찬가지로 연애소설로 대중적 독자층을 광범위하게 확보하게 된다.⁴⁾ 해방 이후 그는 “探偵小説에는 人間性”을 구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장르를 바꿔 “封建的 因習과 個性의 擴張”, “理想과 現實”, “愛情과 倫理”⁵⁾ 등 사회적 윤리와 개인의 욕망을 작품의 전면에 배치한다. 더욱이 그는 신문이 광대한 발표지면과 발행부수를 갖고 있어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중 매체이며, 출판경기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발표지면을 작가에게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작가는 문학수련의 도장으로 신문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 이 당시 김내성이 신문에 연재한 『청춘극장』은 해방 전후를 배경으로, 『인생화보』, 『백조의 곡』, 『애인』, 『실낙원의 별』 등은 전쟁 후의 일상적 생활 세계를 배경으로 사회적 윤리와 개인의 욕망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다.

특히 김내성의 후기소설에 해당되는 『애인』은 1954년 신문에 연재되었으며, 영화로도 제작되어 대중적 인기를 얻는다.⁷⁾ 이 작품이 연재된 『경향신문』

- 3) 1959년에야 비로소 국내에서 라디오 수신기가 조립, 생각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보급되었기 때문에, 인구 1000명당 라디오 보급대수가 1957년 1월에 6.43대였던 것이 1959년 12월에 15.07대, 1961년 9월에 27.44대로 증가한다. 김영희, 「제1 공화국시기 수용자의 매체 접촉경향」, 『한국언론학보』 47권6호, 2003.12, 315-316쪽.
- 4) 1954년 『서울신문』에 연재되었던 정비석의 『자유부인』은 단행본 출간 1년만에 상·하권 합쳐 약 8만부 정도가, 1949년 『한국일보』에 연재되었던 김내성의 『청춘극장』(5권의 단행본이 15만질 판매되었다. 양평, 『베스트셀러 이야기』, 우석, 1985, 14쪽, 51쪽.
- 5) 김내성, 「새로운 情熱 속에서」 『青春劇場』을 脫稿하고, 『청춘극장』, 문성당, 1957, 444-445쪽. 여기서 그는 『청춘극장』의 집필로 탐정소설의 골대를 “완전히 벗어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작품 이후 탐정소설은 『도깨비감투』, 『황금박쥐』, 『검은별』 등 ‘소년물’만 창작한다.
- 6) 김내성, 「신문소설의 형식과 그 본질」, 『현대문학』 26호, 1957.2, 61-62쪽.

은 당시 “도시의 비판적 지식인과 젊은 층”을 광범위한 독자층으로 확보했던 야당지라는 점⁸⁾에서 그의 창작의도와 부합되는 매체이다.

일반적으로 소설은 사회적 상상력으로 사회적 현실을 재현(representation) 하지만, 사회적 현실을 단순히 재현한 공간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재생산(reproduction)한 표상 공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애인』은 해방 이후 유입된 ‘미국 문화’에 대한 지향과 이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문제, 그리고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윤리의 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새로운 윤리관을 정립하고자 욕망했던 작가의 문학적 상상력으로 재현된 표상 공간이다. 그 결과 윤리와 욕망을 ‘자유’, ‘민주주의’, ‘남녀평등’, 또는 ‘인권’, ‘결혼제도’이라는 이름으로 호명하면서, 연애를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과 생리, 남녀의 관계, 가족제도, 그리고 사회적 윤리의 문제를 탐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김내성의 『애인』에서 개인의 욕망과 윤리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2.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윤리의 충돌

세계 질서가 냉전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겪은 전쟁은 남한의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미국 문화에 대한 강한 매혹과 함께, 그들의 일상적

-
- 7) 변재란에 따르면 『애인』은 1956년에 홍성기 감독이, 신신영화사의 후원으로 화려한 캐스팅과 오천만원에 이르는 일반영화제작비의 2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들여, 주제곡 및 배경 음악의 출연악사가 100명이 되는 대작 영화를 만들어 흥행에 대성공을 거둔다. 1967년과 82년에 영화로 다시 제작될 정도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다. 변재란, 「1950년대 감독연구」, 『영화연구』 20호, 2002.12, 187쪽
- 8) 당시 야당지와 중립 비판지로 분류되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은 여당지나 친여당지보다 훨씬 발행 부수가 많았으며 독자의 호응도 높았다. 김영희, 「제1공화국시기 수용자의 매체 접촉경향」, 『한국언론학보』 47권6호, 2003.12, 311-312쪽.

인 삶과 그들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도 증대되었다. 그로 인해 미국 문화를 지향하는 것이 교양인이나 문화인의 척도가 되는 사회적 풍조를 낳았고, 이러한 태도에 대한 반성으로 ‘전통’과 서구문화의 주체적 수용을 모색하는 등 주체 내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 이 시기에 발표된 『애인』은 이런 혼란된 세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체의 위기감이 감지되는 가운데 새로운 윤리와 질서를 정립하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이 엿보인다.

이러한 지적 주체에의 욕망은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는 타자의 제도나 윤리에 대한 전유의 욕망으로 투사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의 주체적 수용 욕망으로 반추되기도 한다. 소설의 서두에서 해방 이후 개인의 인권, 남녀평등의 헌법 제정 등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개인의 교양과 사회적 윤리가 이에 부합되지 못함을 지적한다. 즉, 새로운 사회적 윤리에 대한 모색 없이 전쟁 이후 특히 연애의 자유로움과 방자함,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혼동되어 증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토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런 발언을 통해 작가는 새로운 연애와 윤리, 가족제도의 모색이 이 작품의 지향점임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국가의 기강마저 뒤흔드는 사회적 문제, 즉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윤리의 충돌 지점을 세 인물 유형의 연애관과 결혼관으로 압축하고 있다. 즉 미국 문화를 자유민주주의로,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혼동하고 있는 인물들의 혼란상을 재현함으로써, 당대적 삶과 그들이 겪는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다.

2-1. 애욕의 철학자의 생활철학

『애인』에서 유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편 덕홍상사라는 물류 사업도 병행하는 성공한 법률가이자 기업인이다.

『호적에 오르나 안 오르나 마친까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한 사람의 여자를 상대

로 일생을 보낼 그런 미련한 인간은 아니니까. 공연히 이혼 수속만 귀찮아지는 거야. 그대들이 결혼계(結婚屆) 한 장으로 내 자유를 속박해 보려는 것은 이미 그대들의 애정도 아니고 성실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그대들의 **의식주를 보장 받으려는 하나의 상행위(商行爲)**니까, 그런 위험들이 많은 상행위에 내가 동의를 할만큼 무식하지도 않고 미련하지도 않다. 결혼계 한 장으로써 결혼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애정의 유무가 결혼을 결정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률상의 아내라야만 된다면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다. 어째 그러나 하면 그대들에 대한 나의 애정의 지속을 나 자신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가 말이다.』

그것이 싫다고 본처는 나기버린 것이다. 그리고 중학교 교원이던 이 김옥영은 유민호의 이론을 승인함으로써 삼 년에 걸친 동거생활을 계속해온 것이다.』(286)

유민호는 “쟁들맨십”(287)을 지닌 시민적 교양의 소유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여러 여성들과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며 남성의 특권이라고 과시한다. 결혼은 단지 여성에게는 “의식주를 보장 받으려는 하나의 상행위(商行爲)”이고, 남성에게는 일시적인 애정 관계를 해소하거나 “정복감”(286)을 채워주는 비싼 비용이라고 간주한다. 그는 오히려 영혼과 정신의 대화 속에 생활과 육체의 교섭을 갖는 낭만적 사랑의 이상을 비웃고 철저히 자기 본위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대상화한다. 결혼제도와 남녀의 만남을 철저히 교환가치의 관계로만 파악하고 있기에 자신을 “자비로운 애욕의 철학자”(290)로 자처한다. 그러므로 그는 연애는 향유하면서도 정조의 독점권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결혼관계(호적)는 거부한다. 그에게 “도덕이라든가 성실이라든가 양심이라든가 하는 말”은 오히려 “적개심을 일으키는”(313) 부정적인 발언이 된다.

박준모 역시 결혼을 상거래로 인식한다. 미국유학비를 얻기 위해 결혼을 약속한 정임에게 자신에게는 성적 독점권을 요구하지 말되, 아내의 정조는 지

9) 김내성, 『애인』, 『경향신문』, 1954.10.1-1955.6.30. 본고에서는 1983년 삼성문화사에서 간행한 『애인』을 텍스트로 삼았다. 본고에서 인용할 때는 ‘쭈수만’ 기입하고, 강조는 ‘진하게’ 표시한다.

키라고 말할 정도로 뻔뻔스런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는 결혼한 석란을 “창부를 대하듯이 애정의 표시가 뻔뻔스러울이만큼 노골적”으로 대하면서, 오히려 “자기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솔직한 행동가라고 자처한다. “자유주의를 가져오고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마침내는 한길가에서 키스를 한다는 서양 사람들의 개방주의”(467)로 자신의 남성 중심적인 이기적 욕망을 포장한다. 만약 상대 여성이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구조변동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면, 그는 그 요구를 무시하고 “애욕의 과정”(468)으로만 여성과 교제하는 것이 남성의 특권이자 문화인의 특권이라고 여긴다. 그는 유민호와 달리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를 이용하지만, 그 제도의 규제에 영향받지 않는다. 결혼제도가 남성에게는 “참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되기에는 인간의 생리조직(生理組織)”(488)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는 가정 밖의 세계에서는 ‘현대적 감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하여 꾸린 가정에서는 남자는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으나 아내는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봉건적 감각’을 고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생활철학으로 내세운다.

이처럼 유민호와 박준모는 젠틀맨십을 표면에 내세우기에 현대 교양인의 전형처럼 보이지만, 참된 교양인과는 거리가 먼 “악의 즐거움을 사냥하는 두 개의 타이프”(636)이다. 그들에게 차이가 있다면, 유민호가 “계획성을 지닌 기회주의”를, 박준모는 “뻔뻔스런 바이바리즘(野蠻主義)”을 생활철학으로 삼는다는 점뿐이다.

석란의 어머니인 마담로우즈도 악의 즐거움을 즐기는 유형이다. 그녀는 일부일처주의에 토대를 둔 결혼제도를 속박으로 여긴다. 자신의 딸에게도 성적 자유를 즐기되, 성적 배타성을 요구하는 결혼제도를 부정할 것을 권유할 정도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이다. 그러나 그녀 역시 당시의 다른 여성들과 유사하게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살던 소극적인 여성이었다. 남편 사망 이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녀의 인생관이 완전히 반전된 것이다. 그녀는 <식도락>이라는 음식점을 차리고 가정 경

제를 담당하게 되는 과정에서, “희망과 욕망은 있어도 이상”(277)이 없는 자신의 삶을 합리화시키는 생활철학을 선택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아버지가 이때까지 지니고 온 철학의 전부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마담로우즈에게도 철학은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활에 관한 철학**일 뿐, **인생에 관한 철학**은 아니지요. 그들에게는 희망과 욕망은 있어도 이상은 없으니까요.』

『희망과 이상은 뭐가 다르니?』

부인이 옆에서 입을 열었다.

『다르지요. 생활에 대한 희망이나 욕망을 진선미(眞善美)의 입장에서 비판을 받는 것이 이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담로즈와 같은 적극성을 띤 생활태도에 매력 같은 것을 느낀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이상을 손수 포기하고 단순한 욕망을 그대로 발휘하면서 살아보시겠다는 징조인데…… 대단히 위험한 징조야요.』(277)

마담로우즈는 “배가 고프면 자존심으로 요기할 생각은 아예 말고 쌀떡을 생각”(339)을 하라며, 이상이나 자존심보다 생존과 욕구 충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이런 인생관은 “뿔구멍으로 판 간판을 여러개 걸고 앓”(304)는 “애욕의 철학자”이면서도 겉으로는 정치가나 문화사업가라고 떠돌고 다니는 세태의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생활철학이다. 이러한 표리부동한 인간들에 비하면, 자신과 같이 “술과 웃음”을 파는 사람이나 유민호와 박준모처럼 노골적으로 생리 욕구대로 사는 인간들이 진정한 ‘생활 철학’을 가진 인간이라고 확신한다.

이들 외에도 중학교 교원인 김옥영, 덕흥상사 박주임의 아내 등도 자신들의 젊은 육체와 유민호의 경제력을 맞교환한다는 점에서 애욕의 철학자와 동일한 생활 철학에 기대 사는 인물들이다.¹⁰⁾

10) 이입하는 1955년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4,109,262명으로 배우자가 있는 남성보다 205,119명이 더 많았던 것을 근거로, 이 초과된 수의 여성을 첩으로 추정한다. 또한 1956년 전국의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여성인구가 4,115,475명임을 감안할 때,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여성의 수를 공식자료에 나타난 유엔군 상대의 접대

애욕의 철학자들은 현실은 타락했고 이상 추구는 가치 없는 행위라고 여긴다. 이들은 자신의 욕망과 생존에의 본능에는 충실하지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바람직한 사회적 제도나 윤리는 소망하지 않는다. 근대 이후 법제화된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¹¹⁾를 남성의 욕망이나 본능을 옹호하는 법적 제도라는 점에서 거부하는 대신 혼인상태에서도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며 특권이라고 합리화한다. 이들은 상거래에 기초한 축첩제도를 개인의 욕망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의 논리로 수용하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사회적 윤리로 인정한다. 요컨대 이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본 축적을 보장해주는 한에서만 미국 문화 내지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할 뿐이다.

2-2. 명동형 인물의 일부일처제에 대한 항거

이석란과 채정주는 애욕의 철학자처럼 개인의 욕망 실현과 성적 자유를 서구적 교양이나 근대적 감각의 습득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석란은 온천장의 주인을 ‘주인 아주머니’라고 지칭하면서도, 머리 속으로는 ‘미담’이라고 사고할 정도로 미국 문화에 경도되어 있다.¹²⁾ 석란처럼 전쟁 후의 비루한 일상세

부와 사창을 합한 320,000명으로 한정하더라도 80% 정도의 성인여성들이 성매매를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임하, 『한국전쟁과 여성, 윤희동 외, 『근대를 읽는다』, 역사비평, 2006, 462-465쪽.

- 11) 일부일처제는 1912년 <조선민사령>이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일본 가족법이 조선에 적용되어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고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유숙란 「광복 후 국가건설과정에서의 성불평등구조 형성: 보통선거법과 제한헌법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2호, 2005, 293쪽)며 남녀동권을 근본원리로 삼고 있지만, 특히 1953년 9월 18일에 남녀평등 원칙에 의해 간통한 남녀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형법(법률 제293호)가 제정되면서 축첩의 관습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축첩이 암묵적으로 용인되었음을 『여인』의 독자투고란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 서울대출판부, 1967, 21-22쪽; 정지영, 「근대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찰’의 문제-1920~1930년대 『동아일보』 사건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사학회, 『여성과 역사』 9집, 2008, 12, 88쪽.
- 12) 지운 역시 신혼여행자인 온천장을 “호텔이니까, 서양식을 본따서 여존 남비의 의를

계와 어울리지 않게 ‘의식’ 속에서 서구적 용어로 일상을 재구성하여 사고하는 행위는 서구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특권적 지위를 과시하는 행위이며 서구적 교양을 지닌 문화인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이다. 이는 석란만의 특징적인 행동이 아니라 전쟁 이후 한국 사회의 일상적인 단면이기도 한데, 이런 의식과 행동의 불일치는 현실 인식의 미숙성과 결합될 때 극단적인 행동 양태를 보이게 된다.¹³⁾

석란은 신혼여행에서 “한 사람의 아내라는 관념은 전혀 무시하고”(429) 박준모와 거리낌없이 교제한다.¹⁴⁾ 그런 행동을 제지하는 지운의 행동을 체면이나 예술가적인 자존심을 내세우는 “독재주의”(428)이며 “민주주의 체제”(443)에 맞지 않는 행위로 간주한다. 대신 자신의 행동을 그러한 고난 속에서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아내의 자유를 봉건적인 남편의 손으로부터 획득”해야 할 “중대한 사회문제”(458)를 제기하는 진보적 행동으로 인식한다.

그녀는 사랑을 “에티켓”(491)의 일종으로 여기고, “남편을 참되게 존경하든가 남편에게 참된 애장”(443)에 의해 결혼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석란은 “조금만 행복해 봅시다”(450)라는 박준모의 제의에 흔쾌히 육체적인 접촉을 한다. 자신의 행동에 성적 독점권을 주장하는 남편의 요구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 남편의 이혼 요구와 폭력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이

채려야 하는 거야 마담 플라이즈(부인, 자아, 어서)”(410)라고 신부 석란에게 서양식 예를 갖춘다. 백철, 『誤認된 美國文化: 浮薄과 頹廢가 誇張되다, 『신태양』 제7권제9호, 1958.9, 196-201쪽.

- 13) 전쟁 이후 도시인의 언어 생활에 영어가 깊숙이 침투될 정도로, 미국식으로는 문화 변동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417-8쪽.
- 14) 조연현은 『실낙원의 별』의 영립을 “성적 생활의 자유를 구가하는 여성”, 즉 아프레 걸로 지칭한다. 석란은 『인생화보』의 예림, 『실낙원의 별』의 고영립과 유사한 인물 유형이다. 그러므로 석란이나 예림 역시 아프레 걸로 지칭되는 여성임을 추론할 수 있다. 김내성은 이들을 새로운 시대의 윤리를 수용하고자 하는 여성으로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나 주장을 단순히 비난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존재로 접근한다. 조연현, 『해방 후, 윤리적 기초의 연애』, 『여원』, 1957.7, 176-179쪽.

아니라 일부일처주의 결혼제도의 모순 때문에 유발한 행동으로 간주해 버린다.

그렇지요 애정이나 애욕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무제한 허용하는 결혼 형태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을 봉건적 사회에 있어서는 **일부일처주의의 윤리로서 억압**을 했었고 오늘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윤리 이외에 한 가지 더 당사자들이 바꾼 약속의 존엄성으로서 억압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의 일부일처주의의 결혼은 **애정과 윤리와 약속**의 세 가지 유대(紐帶)로서 형성되고 또한 지속되고 있는 것이요.(508)

위 인용문에서 보듯, 석란은 일부일처주의 가족제도는 애정과 윤리와 약속이라는 세 요소로 유지되는 결혼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여성에게 일방적인 정조의 윤리를 강요하고 당사자 간의 믿음 없는 약속만으로 유지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한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운명이나 한국여성으로서의 운명보다 “제 삼의 운명”(510) 즉 아내로서의 운명을 강요하는 여성의 현실에 분노한다. “일부일처주의의 미덕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것은 세상의 아내들뿐이고”,(513) “사회적 비판을 마련하고 형성하는 주체”(514)와 “오늘의 모든 문화의 추진력이 되고 도덕의 기준을 세우는”(514) 주체 역시 모두 남성이기에 규율의 제재조차 받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석란은 일부일처주의 결혼제도가 남성 중심적인 체제를 존속시키고 남성의 생리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을 ‘운명’이라는 굴레로 속박하는 사회적 제도이자 윤리로 인식한 것이다. 그 결과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입으로는 외치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근대적 규율이자 가족 제도로 여기는 “한국적 모랄”(441)의 이중성에 대해서 분노한다.¹⁵⁾ 그러나 결

15) 정비석의 『자유부인』과 김내성의 『애인』, 이 두 작품은 해방 후 급속하게 파급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라 욕망의 자유를 분출하려는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정비석이 봉건적 윤리에의 순종으로 귀결되면서 “통속소설의 사회 교화적 역할”을 수행하며 당시 지배담론의 한 측면인 반공의 담론을 내재한 가부장적 담론으로 귀속되는 허약한 인간상을 다루었다. 정비석, 『통속소설소고』, 『소설작법』,

혼제도에서 요구하는 성적 자유의 제한을 “한 사람의 자유의 한계”(510)로 문제 삼는 급진적인 모랄리티만을 제시할 뿐이다. 이처럼 석란은 서구문화를 전유하되 그것을 관념으로 전유하였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을 구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다.

그러나 이혼녀가 된 석란은 사회적 윤리로부터 타자화되면서 심적 갈등을 겪는다. 그래서 “뜨내기 애정은 모르지만 여자의 참다운 애정은 역시 남자의 탐탁한 속박과 보호에서부터 생기는 게 아니요?”(305)라고 자책하고, “허술한 자유보다는 탐탁한 속박이 갑자기 좋아졌어요.”(715)라고 토로하는 허약한 면모를 보인다.

이때 남성 중심 세계로부터의 일탈과 성적 결정권의 자유를 소망했던 그녀의 명랑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약한 철학적 토대와 미숙한 현실 인식으로 인해 비주체적으로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석란의 태도에는 비판적이면서도, 가부장제를 유지하려는 남성들을 비판하는 석란의 태도에는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서구문화에 대한 맹목적 추수와 석란의 행위는 구별된다. 석란이 서구적 보편성에 기대어 개인의 욕망과 그 자유를 토로하는 것이며 자신의 추체험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행동한 것이지, 서구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수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된다. 다시 말해 그녀의 어머니는 경제적인 무능과 비판적 시선 때문에 남편의 폭력을 고스란히 수용해야 했지만 아버지의 사망 후 경제적 풍요와 개인의 욕망 실현이 가능했다. 그녀는 가부장적 제도의 폭력성을 그런 어머니를 통해 추체험하고, 그런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남녀평등권을 소망했던 것이다.

요컨대 석란은 교양 강좌를 수강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지운을 결혼의 상대자로 선택하고 결혼 체의도 먼저 할 정도로 적극적이며, 경제적 고통에

맞서 생활 전선으로 나설 필요가 없는, 전쟁의 고통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의지나 욕망을 여과 없이 표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토대를 갖춘 부유계층의 행동 양태를 보여준다. 그래서 경제적 풍요와 지적 습득 과정을 거친 현대 여성으로, “지식이나 교양의 깊이는 없으며 현대적인 센스”(95)를 갖춘 명랑성을 지닌 ‘명동형 인물’로 불려진다. 이러한 명동형 인물을 비평계에서는 아프레 걸로 지칭하는데,¹⁶⁾ 이들은 석란처럼 성적으로 방탕한 여성이나 혼란기에 잠시 등장한 “불량형”의 인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전통적 윤리관으로부터의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정도로 똑똑한 여성¹⁷⁾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석란은 성적 개방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프레걸의 이중적 면모를 모두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2-3. 성실한 도덕주의자의 인생철학

6·25전쟁은 대규모의 민족 이산을 가져옴으로써, 사회질서와 일상의식을 규제하던 전통적 질서나 생활 윤리를 급격히 와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윤리는 그 사회적 규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자리에 재빨리 서구 문화, 특히 미국문화가 대체되어 버린다.¹⁸⁾ 임학준 교수는 전쟁과 미국 문화로 인해 “일반 대중의 생활 신조에 커다란 변모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 변모의 근본적인 원인은 철학의 빈곤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는 일반 대중이 생활기반을 송두리째 뺏긴 후 생존을 위해서 이상을 내던지는

16) 1950년대 여성교양잡지인 『여원』에서는 전후와 여성인 아프레 걸은 성적으로 방종한 여성 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성을 기획할 수 있는 세세대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정희, 『어느 여대생의 이야기-지성을 갖추자』, 『여원』, 1957.4, 134-137쪽/ 좌담회, 『새로운 세대를 위한 윤리와 생리의 대화』, 『여원』, 1957.4, 74-85쪽.

17) 김현주, 『‘아프레 걸’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한국문예비평연구』 21집, 2006.12, 316쪽.

18) 김경일, 『근대성의 경험과 근대주의』,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2003, 82쪽.

현실에 개탄하면서, 생존이나 욕망을 쫓는 생활철학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인생철학을 지향하고자 한다.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자.』

이것이 임 교수의 **인생 철학**이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철학 위에서 영위되어 온 오십 삼년 동안의 임 교수의 생활은 소박과 성실과 겸양과 근엄과 극기(克己)의 도덕을 밑에서 지배되어 왔다.(50)

극기복례라는 전통적인 수양과 서구의 내면적 교양의 힘을 결합한 세계관을 간직한 임 교수는 전통적인 윤리관이나 결혼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허영심의 만족을 위한 연애, 또는 취미내지 장난을 위한 연애 혹은 시험적인 연애 같은 경박한 연애”를 하지 말고, “진실로 한 번 빗맞으면 피를 보고 목숨을 건드리는 진검승부(眞劍勝負)”(20)의 연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 발생적인 생리적 욕구를 인간만이 가진 지성으로서 통솔하는 노력이 요청”(23)되며 지성, 교양, 수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리적 욕구만을 쫓으면서 애욕의 철학자로 자처하는 유민호, 박준모, 마담로우즈와 대비된다.

그는 자식이나 아내도 자신과 동일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소통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지표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로 대우한다. 또한 연애를 “청춘의 심볼”(20)로, 참된 의미의 행복을 “욕망의 이상화(理想化)”(279)로 주장할 정도로 개방적이면서도 진보적인 사고를 지녔다. 그러나 결혼에 무관심한 아들에게 “임씨의 대가 끊어져도 너는 좋”(93)으냐고 언성을 높이는 행동에서 추론해 볼 때, 그가 주장하는 “소박과 성실과 겸양과 근엄과 극기(克己)의 도덕률”(50)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습성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서구문화를 수용하고 그것을 생활 지표로 전유하려 하면서도, 가족제도와 “보배로운 아내와 가정”(279)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통적 윤리를 기꺼이 수용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윤리관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허정옥 역시 “자기 감정에 의해 새로운 도덕,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생각은 공상이며, “개인과 더불어 인류전체를 구제하는 유일한 길”(615)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의 사회적 윤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결혼 생활에서 성실한 부부애를 강조하는 한편, 배우자가 아닌 이성에 대한 감정은 이성적으로 제어해야 하며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늘 이성, 교양, 수양의 길을 인생철학으로 삼아야 한다고 여긴다.

임 교수나 허정옥은 인생철학의 내적 논리인 성실, 교양, 수양의 길을 남녀 모두가 수행해 할 덕목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덕목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여성의 인내와 권리 포기, 주장의 억제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채정주는 석란처럼 자신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현할 줄 알면서도 “자존심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연애를 포기할 수 있”는 현대적인 여성이다. 하지만 당대 여성 “태반이 수동적”(337)이듯 그녀 역시 남녀관계나 가족관계에서는 수동적인 태도를 고수한다. 박준모의 약혼자인 정임 역시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춘 현대적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약혼자인 박준모에게 처녀성을 잃고는 그에게 포박되어 버린다. 그의 이기적인 성적 개방성마저 모두 포용하는 것이 여성의 숙명이라고 여긴다. “임 지운이라는 이 점잖은 남편이 자꾸만 불쌍해 졌다. 습성으로 정임은 남자의 방탕성을 허용은 하고 있지만 여자의 무절조는 용서하지 않았다.(453)”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 역시 채정주처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현대 여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남녀관계나 가족관계에서는 남성중심의 권력 관계를 인정하는 보수적 태도를 취한다.

석란이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에 저항하기 위해 결혼제도마저 부정했다면, 성실한 도덕주의자들은 현대적 교양과 감각을 존중하면서도 가부장적 결혼제도도 사회적 제도와 윤리로서 준수해야 한다는 인생철학을 지니고 있다.

3. 욕망의 이상화

근대적 개인은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을 정의하되 타자와의 관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알며 현실에 기반하여 미래를 전망하는 개인으로 정의된다.¹⁹⁾ 또한 사회적 집단들에 관한 속성들이 모두 개인들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자유를 지닌다고 간주한다. 그러나 개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은 대부분 그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들을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획득한다. 또한 자아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이 사회화된 공동체 안에서 구성해 나가며,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의해 정해진다.²⁰⁾

연애와 결혼은 남녀 간의 사적인 관계 맺기 방식이지만 사회적·계층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적 차원이며 공동체적 가치의 문제와 관련된다. 따라서 개인들은 성적 자유를 구가하지만, 결혼제도와 사회적 윤리에 기대어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조정한다. 그런데 전쟁 직후 정신적 공황(panic)상태로 사회적 제도가 약화된 데다가, 미국 문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자아의 이기적인 욕망 실현이 자유 또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삶의 태도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시기에 김내성은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윤리의 부조화, 그 사이에서 균열된 자아의식을 세 가지 인물 유형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타자에 대한 헌신과 성실함에 기초한 욕망 실현이 사회적 윤리로 정립되기를 소망하는 작가의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첫 번째 유형은 애욕의 욕망을 향유하지만 애정의 친밀도나 성실한 부부애를 부정하는 인물 유형이다. 경제력과 사회적 권력을 소유하였기에, 일 부일처제에 기초한 사회적 윤리를 무시할 수 있다고 자만하고, 결혼제도나 연

19) 나병철,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문예출판사, 1996, 16쪽.

20) 권용혁, 「세계화와 보편 윤리」,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제1호, 2001.4, 118-119쪽.

애를 개인의 욕망 실현에 이용하는 속물적 욕망을 지닌 인물 유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애욕의 욕망을 향유하지만 그것이 애정의 친밀도나 성실한 부부애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서구적 이론으로 무장되었다고 자처하지만 미숙한 현실인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물적·정신적 토대인 사회적 윤리나 제도마저 어설피게 부정한다. 세 번째 유형은 연애가 지상선을 구현하는 것이며, 그것이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결혼제도로 자연스럽게 구조 변동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성실성과 애정의 친밀도를 토대로 하지 않는 애욕적 욕망은 부정하는 대신, 가부장적 관습은 용인한다.

김내성은 「대중문학과 순수문학-행복한 소수자와 불행한 다수자」에서 대중문학은 독자의 문학적 교양의 수준을 염두에 두되 대중의 수준과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대중문학은 대중독자에게 문학적 위안을 주는 ‘자인’(sein, ‘존재한다’는 의미의 독일어)의 문제와 대중독자의 교양을 고양시킬 수 있는 ‘졸렌’(sollen,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독일어)의 문제를 동시에 답아야 한다. 그는 『애인』에서도 “대중의 구미에 맞도록 “자인”적 인물을 제시하는 한편, 그들의 문학적 교양을 “일보진전”시킬 수 있는 “졸렌”적 인물을 창조하고 있다.²¹⁾

첫 번째 유형인 유민호, 박준모 등과 같은 인물은 자아의 자인적 욕망만 추구할 뿐이다. 이들은 졸렌적 욕망을 추구하는 대신 성적 욕망을 교환가치로 치환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나 애욕의 철학만을 소유하고자 한다. 이들은 이상 추구를 가치없는 행위라고 여기는 천박한 문학적 교양을 지녔기에, 자기 또는 자기 행동에 대한 성찰을 기대할 수 없는 “자인”적인 인물 유형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은 자인적 인물이면서도 “졸렌”적 인물을 창조하려는 작가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인 석란의 미숙한 행동이 현실의 제도와 윤리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현하면서도, 그녀의 행동에 공

21) 김내성, 「대중문학과 순수문학-행복한 소수자와 불행한 다수자」, 『경향신문』, 1948.11.9.

감하는 여성들과 자매애로 유대하면서 이상적 가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려 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또한 세 번째 인물 유형에 속하는 임지운과 오영심은 석란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상화시킨다. 이들은 성실한 도덕주의자의 인생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정의 친밀도에 기초한 애욕의 욕망을 영원까지 추구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당대의 사회적 윤리에서는 용납 받지 못한다고 여기고 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²²⁾의 환영을 쫓는 듯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욕망을 이상화시키기 위해 기꺼이 낭만적 사랑의 순교자가 되는 결단성을 보인다.

3-1. 남성의 횡포에 대응하는 자매애

6·25전쟁은 윤리적 가치나 공동체적 가치보다 실용적 합리성과 개인주의적인 능력을 정당화하면서 남녀의 관계망이나 새로운 가족망의 구성을 급속히 진전시킨다. 전후 미국의 원조와 함께 들어온 대중문화, 성윤리의 문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사회적 위상의 상승 등에 따라 사회적 윤리의 파괴와 새로운 윤리의 창조라는 이중적 욕망의 충돌은 격화된다.²³⁾ 이러한 충돌 지점에서 실존적 위기를 겪는 여성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매애(sisterhood)가 형성된다.²⁴⁾

『자꾸만 슬퍼요 난 이제 처녀가 아냐요 그것이 자꾸만 슬퍼요 내가 지냈던 모든 금지는 이미 없어지고 말았어요 임 지운이가 뭐가 그리 잘 낫기에 아주 뺄대는 거예요 내 실수에 대한 **남성들의 비판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말이에요 나를 용서

22) 벤야민은 상품물신성 개념을 확장하여, 현대가 부여하는 매혹 이면에 고통의 환각을 판타스마고리아(phantasmagoria)란 용어로 설명했다. 그램 질로크, 노명우 역, 『발터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사, 2006, 237쪽.

23) 이정덕·박허식, 「한국 가족윤리변천사 4-1950년 6·25동란이후부터 1960년대 말까지」, 『대한가정학회지』 37권7호, 1999, 47쪽.

24) 『실낙원의 별』의 고영림, 김옥영, 한혜련도 자매애를 형성하는 여성군이다.

못하겠다는 임 지운의 감정은 임 지운 개인을 떠난 듯 남성들의 감정을 대변하는 거지요. 그것이 분해요. 내 행동에 대한 형벌이 너무 가혹해요.』

뒤라고 말을 하여 석란의 비애를 위로해 주고 싶었으나 정주는 적당한 말을 고르지 못했다. 남녀의 확립(確執)에서 **궁극의 피해를 받는 것은 여성들**이라고 그 점만은 정주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었다.(553)

석란은 미숙한 현실 인식 미숙함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의 행동만 규제하는 남성 본위의 현실에 대해서는 끝내 분노한다. 전자의 태도는 자신이 일부일처주의의 결혼제도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모두 부정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반성의 결과 성실한 부부에게 기초한 일부일처주의의 결혼제도를 인정하게 된다. 반면에 후자의 태도는 축첩을 용인하는 남성들의 뻔뻔스런 욕망과 가정 내에서 남녀의 위계화를 유지시켜주는 사회적 윤리에 대한 강렬한 저항의식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이에 대한 비판의식은 끝까지 굽히지 않는다.

석란의 말처럼,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남성은 인격적 독립성과 자유로운 표현성을 인지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고 이를 국가나 사회를 통해 현시할 수도 있다. 반대로 여성은 국가나 사회를 통해 헌신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적 자의성이나 감정적 헌신을 그 특성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²⁵⁾ 그러므로 여성은 자기 경험에 기초하여 다른 여성의 고통에 공감하고 가족처럼 보호해 주려고 한다.

채정주는 석란이 겪는 심적 고통에 대해 “남녀의 확립”이 분명한 남성중심 사회에서 겪는 여성 일반의 비애로 이해하고 공감한다. 여학교 시절부터 석란과 정주는 “남성에 애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열렬한 동성애”(74)적 유대감이 있던 사이이다. 그러나 배우자를 선택한 이후 이들의 유대감은 젠더

25) 이정은, 「혜겔 『법철학』에서 여성적 자매애와 사회적 우애의 관계-여성의 가족애와 남성의 직업단체적 배려를 통해」,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철학』 제3권, 2003, 11, 62쪽.

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애정으로, 감정적 합일, 사랑, 배려 등의 자매애로 전환된다.²⁶⁾

(가) 옥영은 같은 여성의 불행을 진심으로 동정하였다.(288)

(나) 보통 여자로서는 감히 토하지 못할 한 마디를 박미경은 했다. 여성대 여성의 질투의 감정을 선망의 넘으로서 표현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행동의 하나이다. 그 순정하고 고운 마음씨가 영심의 마음을 솔직하게 컸다. 어딘가 영심 자신과 비슷한데가 있는 여성이라고 영심은 박미경의 불행을 진심으로 동정하였다.(352)

(가)는 경쟁 심리와 정복욕에서 비롯된 영심과의 결혼식은 거행하되 그녀를 자신의 호적에는 올리지 않겠다는 유민호의 말에 김옥영이 반응하는 대목이다. 김옥영은 중학교 교원으로 경제적 필요에 의해 유민호의 첩으로 살아가는 여성이지만, 자신과 달리 유민호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농락당한 박미경이나 오영심의 처지에 대해서 가족과 같은 심정으로 동정한다. 남성의 축첩 행위가 법적으로는 제한된 행위이지만 전후 경제적 궁핍 속에서는 법적 제재 없이 여성의 육체를 돈으로 교환되는 상황이 일반화되는데, 이러한 현실의 속내를 이미 간파한 김옥영은 다른 여성의 불행을 “같은 여성”의 불행으로 여기고 동정한다. (나)에서도 영심이 유민호의 뻔뻔스러움을 체험했기 때문에 유민호에게 농락당한 박미경의 불행을 “자신과 비슷한” 여성의 불행으로 여기고 동정한다.²⁷⁾

채정주, 김옥영, 오영심 등은 서로 다른 삶의 태도를 지녔지만, 가부장적 모순에 피해당한 자신의 처지와 유사한 여성들을 ‘우리’라는 자매애로 포용한

26) 이정은, 「혜경 『법철학』에서 여성적 자매애와 사회적 우애의 관계-여성의 가족애와 남성의 직업단체적 배려를 통해」,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철학』 제3권, 2003, 11, 60쪽.

27) 자매애는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중심의 페미니스트들이 지녔던 하나의 이념인 동시에, 여성해방투쟁의 과정에서 그들이 몸으로 체험했던 유대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강선미, 「자매애에 대하여」,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 11호, 2000.4, 66쪽.

다. 이러한 태도는 동병상련의 심적 동조가 아니며, 여성의 자유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변혁을 소망하는 동시에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확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근대적 개인의 태도이다. 이는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일부일처주의의 결혼제도를 긍정하는 태도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그건 사장이 남성의 횡포를 변명하는 궤변이에요 우리들 여성은 그러한 남성의 부동적(浮動的)인 애욕보다도 좀더 조용하고 고정적인 애정을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하는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결코 실리만은 아니에요 남성들의 애욕의 세계에는 그러한 악마적인 때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성들의 애정에는 성스러운 만큼 이쁘고 아름다운 데가 있는 줄을 알아야 하실 거예요.』(300)

위 인용문을 보면, 박미경이 유민호에게 여성의 육체를 교환가치로만 환산하려는 남성의 악마성을 지적하면서 연애는 하되 법적인 결혼을 거부하거나, 결혼은 하되 남녀 동권을 거부하는 남성들의 악마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보호 장치인 결혼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언한다. 유민호가 그녀의 육체를 유린해 놓고 결혼 요구에는 “애욕의 순수한 예술성을 모독하는 행위”(300)라고 뻔뻔스럽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발언은 사회적 윤리와 타협하는 순응적인 자세가 아니라, 애욕 때문에 여성을 농락하는 남성의 잘못된 성 습관을 담론화하는 장치이다. 그러한 남성에게 “성스러운 만큼 이쁘고 아름다운 데”가 있는 “우리들 여성”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자매애적 연대감이 깔려있다.

작품의 결말에서 석란 역시 박미경처럼 일부일처주의 결혼제도를 수용하는 것도 이런 담론화의 결과이다. 이혼 후, 석란은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경제력으로 여성의 육체를 교환하는 세태를 자각하면서, 여성의 인권과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일부일처주의 결혼제도를 필요악으로 수용하고 기꺼

이 “여권운동가”(605)가 된다. 그러므로 석란의 심경 변화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사회적 윤리나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²⁸⁾ 한국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정하고자 하는 문제적 개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야 비로소 심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석란이 유민호의 비열한 여성편력을 폭로하여 정주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미연에 막았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처지의 여성, 즉 채정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행동이며,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가부장적 삶을 유지하려는 남성에게 의한, 남성을 위한 지배담론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이러한 석란의 자매애적 태도는 “전후의 실업난 속에서 사회는 우선적으로 남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 하며 그래서 여성들을 생산영역이 아닌 가정이라는 재생산 영역으로 귀환시키고자”²⁹⁾했던 당대의 지배 담론과 배치된다. 가족 내에서 남녀의 성별 위계화와 성적 영역의 분할을 기획하려는 지배담론과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질서와 윤리에 대한 지향 욕구를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지만 그러한 욕구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3-2. 낭만적 사랑의 순교자

일반적으로 사랑은 “나와 타자의 통일의 의식”이며, 독립적인 두 인격체가 자신을 완전하지 못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서로에게서 서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능동적인 활동이다.³⁰⁾ 분리된 두 남녀가 불완전한 인간임을 깨닫고 ‘합

28) 장민지는 석란의 심적 갈등이 현실과 타협하는 태도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단선적으로 작품을 이해한 결과이다. 장민지, 「김래성의 『애인』, 『실낙원의 별』 연구」, 『어문론총』 36호, 2002.6, 141쪽.

29) 김소영, 『근대성의 유행들』,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0, 143쪽.

30) G. W. F. Hegel, ‘Die Familie §158’, *Philosophie des Rechts*, 황태연 편역,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지양사, 1983, 216-217쪽.

일의 감정'을 획득하는 과정이며, 두 인격체의 개방성과 민감성, 그리고 신뢰와 권력의 균형을 전제한다.³¹⁾ 또한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삶의 궤적을 제공해주므로 필연적으로 구조변동을 수반하기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 가정 또는 가정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구상하게 한다. 이처럼 사랑은 개인의 감정이나 성적 욕망만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윤리나 제도가 관여하게 되기에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경계 지점이 된다. 또한 배타적인 성 독점권을 전제하기에 상대에게 제한적 성적 자유를 요구한다.

낭만적 사랑은 근대 이후 사회적 윤리에 대한 도전적 의미를 갖지만, 이 작품에서는 사회적 윤리의 파괴와 창조의 전략적인 거점이 된다.

『연애는 **진검승부**라고요. 잘못하면 목숨을 건드리는 그런 종류의 사랑만이 진실하고 아름다운 연애라고요.』(176)

지운과 영심은 연애를 ‘진검승부’로 여기는 성실한 도덕주의자들이다. 연애를 지상선으로서 추구하려는 욕구는 연애를 애욕으로만 환치시키는 제도를 파괴하고 연애를 지상선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창조하려는 욕망의 다른 표현이다.

지운은 석란의 자유분방한 행동을 이론적 차원에서는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사회적 윤리의 차원에서는 “모럴리티의 붕괴”(150)로 인식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 그는 “포옹을 동경하는 의욕”(140)을 가진 현대적 남성이기에, 자신들의 포옹에 “미풍양속의 파괴”(150)라고 비분강개하는 신사의 고루한 윤리관에 동정심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포옹의 열정을 드러내는 석란의 행동에는 당혹해 하는 등 “혁명에의 동경과 전통에의 애착”, “파괴와 보수”(151) 등 사회적 윤리의 파괴와 창조 사이에서 갈등하는 젊은 지식인의 혼란을 드러

31)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 외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1999, 165쪽.

내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석란과 영심, 두 여인 사이의 갈등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현재의 연인인 석란을 향한 성적 욕망을 “인간의 운명”(106)으로, 과거의 연인인 영심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정열을 분열시키는 불행한 의식”(166)으로 인식한다. 영심에 대한 기억은 석란과의 포옹, 그로 인한 황홀감이나 행복감을 죄의식으로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행복감 속에서 불행을 의식하는 판타스마고리아로 갈등을 겪는다. 이런 판타스마고리아를 현대 지식인이 겪는 비극이라고 일반화시키지만, 그 기억으로부터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

지운은 연애가 “인생의 필수품”이 아니지만, 결혼은 인생의 필수품이라고 간주하면서, 비로소 현재의 황홀감과 기억의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는 영심과 석란, 사랑의 감정과 성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후자를 인생의 운명이며, 사랑을 전제한 것이 애욕이고, “이론의 투쟁이 아니고 감정의 조화”(432), “성실한 부부애”(234)가 토대가 된 결혼을 습성 또는 가족 윤리이자 사회적 윤리라고 확신한 후에야, 석란과 결혼할 정도로 이성적 인간이다. 사랑의 감정과 성적 욕망이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구조 변동하는 것이 낭만적 사랑의 일반적인 공식이며, 이 공식에 지운이 이성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지운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며 등골에 냉수를 끼얹는 것 같은 일종의 전율을 느꼈다.

『이 전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논리적인 전율은 확실히 아니었다. 논리적으로는 이미 하나의 지식으로서 박 준모나 석란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운은 아니었다. 분명히 그것은 습성(習性)의 전율이었다.(455)

그의 기대와 달리 신혼 여행지에서 석란이 그에게 욕망의 자유와 독립적 인격체로서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는 이러한 요구에 “습성의 전

을”로 대응하고 결국은 석란과 이혼한다.

오영심 역시 내면에는 강렬한 사랑에의 욕망을 가진, 사회적 윤리의 파괴와 창조에 대한 욕망을 잠재적으로 지닌 여성이다. 그녀는 사랑하는 연인의 인격 속에 흔쾌히 자신을 헌신할 용기가 있는 “사랑의 순교자”(28)가 될 수 있는 내면의 소유자이다.

영심은 어린 시절 남몰래 창경원에서 만났던 남학생(지운)을 마음의 초록별로 삼고 있으면서도, 성년이 된 후에는 그 사랑의 영원성에 의지하여 조용히 생을 영위한다. 그러므로 “행실이 방탕하면 방탕할수록 그것과 보조를 맞추듯이 마음의 초록별을 마음대로 그리워해도 무방할 것만 같은 자유”(357) 때문에, 성실한 허정옥보다 비도덕적인 유민호와 결혼하려 한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오직 한 길 현실에의 타협을 끝끝내 거부함으로써 참되고 아름다운 이상의 추구 속에서 고독한 영혼 하나를 끝끝내 붙들고 살려는 기열하고도 처참한 투쟁의 자세”(357)로 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허정옥의 성실한 구애에 감화되어 유민호와의 결혼을 포기하고, 마음의 초록별도 깨끗이 잊고 허정옥의 “정열 속에서 행복을 찾”(383)기로 작정한다. 평범한 결혼을 하여 평범한 행복 속에서 살다가 죽을 결심으로 정옥과 결혼한다.

지운과 영심은 다른 배우자와의 결혼을 계기로, 일부일처주의의 결혼제도를 사회적 윤리로 용인하고 ‘자인’적 인물처럼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둘의 해후 이후 이러한 습성이 점차 균열하고 있음을 각자 감지한다. 지운이 친구의 부인이기에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그녀에 대한 사랑에 <애인>이라는 작품에 담아내게 되고, 영심은, “결혼한 부인의 도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윤리 역시 그녀에게는 거역 못할 지상 명령”(683)이기 때문에 지운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간신히 추스른다. 특히 영심이 지운이 작품으로 표현한 사랑마저도 수용하지 못하는데, 이는 성실하고 헌신적인 남편 허정옥, “일부중사의 미덕을 가르쳐 주신 할머니”, “삼강 오륜의 길을 깨우쳐 주신 아버지”(723)에 대

한 가족으로서의 의무감이 그녀의 행동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유민호의 간계로 영심과 지운과의 관계가 두 집안에 폭로되자, 이들은 내적 갈등에서는 벗어난다. 그러나 사회적 윤리이자 제도를 파괴했다는 죄의식 때문에 자살을 결심한다. 각자 상대방의 죽음을 막기 위해 기출한 후, 창경원에서 해후한 두 사람은 낭만적 “사랑의 승리”를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현실 윤리가 자신들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인간의 패배”(777)를 토로한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신화”(179)로 호명했듯이, 이번에는 “성녀 마리아”(686)로 호명함으로써 애욕의 충족을 스스로 규제한다. 낭만적 사랑의 감정을 신의 영역에 귀속시키는 대신 애욕의 충족을 연기시킨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북한산을 오르면서도 “자기의 말과 관념대로 영심을 끝끝내 성녀로서 대하기에는 지운이가 지닌 현대식 감각과 의식의 향기”(686)를 느끼지만, “절실한 애무에의 충격”(793)을 영원 속에 동여매고서, 죽음의 동반자가 된다.

사랑의 극치는 주는 것도 아니고 소유하는 것도 아닌 성 싶었다. 사랑 그 자체 속에서의 개체(個體)와 함께 진실재(全實在)의 용해(溶解)를 의미하고 있을 뿐이다. **주는 것을 생각하고 소유하는 것을** 의욕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사랑의 순수한 자태는 아닌 것이다.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있는 것은 오직 사랑 그 자체일 뿐이다. 사랑 그 자체가 가치(價値)체(體)일 따름이다. **사랑에는 효용(效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793)

소설의 결말에서 지운과 영심이 성적 욕망을 동여맨 채 죽음의 길을 동반하는 행위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성적 욕망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태도의 투사(投射)이다. 결혼제도라는 사회적 윤리와 제도가 그들의 사랑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용해”해 버린 것이다. 낭만적 사랑이란 소유할 수 있는 물질이나 교환가치가 아니며, “그 자체가 가치체”라고 치부한다. 이처럼 성적 욕망을 사유 속에 용해해 버리는 행위

는 현실 윤리를 파괴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기대 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윤리를 창조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동여맨 채, 서로를 “서구적(西歐的)인 로맨티시즘을 동양적인 모랄리즘으로 감싸고 있는 여성”, “중세기적 로맨티시즘을 임 교수의 근엄한 성실로서 캄플라즈하고 있는 작가”³²⁾(798)로 규정하고 기꺼이 낭만적 사랑의 순교자가 된다.

두 사람의 사랑이 성적 욕망으로 자연스럽게 구조 변동되지 못하고 성적 욕망을 동여맨 채 죽음을 선택하는 이러한 결말구조는, 표면적으로는 일부일처주의 결혼제도를 용인한 결과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 사회적 윤리와 욕망의 부조화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현실세계의 모순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두 사람의 가출에 임학준은 “좀더 재치있는 삶의 방도를 못 가르쳤단”(744) 자신의 잘못을, 오진국은 “시대가 나쁘다”(773) 라고 잘못된 시대를 한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한탄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내적으로는 성적 욕망을 교환가치로 인식하는 애욕의 철학자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시대현실에 대한 비판이며, 사회적 제도의 폭력성에 재치 있게 대처하지 못하는 현대 젊은 지식인의 미숙한 현실 대응력에 대한 동정이다.

그러므로 둘의 죽음은 서구적 가치와 윤리가 유입되면서 당대 젊은 지식인들이 겪는 가치관의 혼란과 그에 따른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세계인식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랑의 감정과 성적 욕망을 억제해야 하는 현실의 지배담론, 사회적 윤리와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담론화의 장치이며, 사랑이 애욕으로 오인 받고, 애욕이 사랑으로 꾸며지는 현실 세계를 성찰하게 하는 장치인 것이다. 가족 윤리를 지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인 일부일처주의 가족제도조차도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제도가 되지 못한다는 현실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역설인 셈이다.

32) 지운은 『백조의 곡』(1954)에서 중세기적 로맨티스트로 자처하는 박인혜와 대비된다. 박인혜는 사랑을 쟁취하려는 의지를 표출한 지운과 달리 자기의 내면을 은폐하고 한은주와 고영훈의 사랑을 연결시켜 준 후, 허무감에 빠지는 인물이다.

5. 맺음말

1950년대는 전쟁이라는 물리적인 악조건 외에도 실존의 불안, 미국 문화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향락적 이기주의의 팽배 등으로 사회적 윤리와 욕망의 부조화가 극심했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애인』의 서두에 있는, 철학이 빈곤한 시대에 연애를 통해 인생철학을 세워야 한다는 임 교수의 말은 가족이나 윤리, 욕망의 담론화로 작동된다. 즉 전쟁과 미국 문화의 유입 등으로 인한 정신적 혼란 상황의 수습을 가족제도를 통한 그것의 주체적 수용에서 찾으려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애욕의 철학자, 명동형 인물, 성실한 도덕주의자 등의 ‘자인’적인 인물들을 통해 현실을 재현함으로써, 전후 젊은 지식인 사이에 싹트던 연애에 대한 욕망을 개인의 자유 의지와 사회적 윤리라는 측면에서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연애나 성적 욕망을 가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가족을 둘러싼 제도나 사회적 윤리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작가가 창조한 ‘졸렌’적 인물이 현실에 토대를 두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죽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요컨대 자매애의 형성과 낭만적 사랑의 순교, 즉 “두 사람은 영혼의 불멸을 체험하기 위하여 일부러 위태로운 낭떠러지를 비틀거리며 걸었다. 이윽고 백설로 담요 삼고 이불을 삼은 두 개의 육체에서 한 쌍의 영혼의 나비가 창공을 향하여 나불나불 승천(昇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소설의 결말구조는 대중독자의 감정구조와 맞닿아 있는데, 이 소설도 예외는 아니다. 일상으로부터의 일탈, 그리고 복귀, 안착이라는 대중소설의 서사 구조는 쾌감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보다 확장하려고 하는 한편, 사회적 관습을 유지하려는 욕구 때문에 ‘쾌감 불안’을 느끼는 대중 독자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쾌감 불안’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감정을 확장하기 위한 소설적 안정 장치를 배치”하게 된다.³³⁾ 김내성 역시 당대 독자들의 감정구조와 소통하기 위

해 ‘자인’적 인물 유형을 배치하는 한편, “낭만적 사랑의 순교”나 “자매애”라는 욕망의 이상화 방식으로 타협적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³⁴⁾

이 작품의 대중적 인기는 당대 독자들이 한편으로는 지배담론의 광고함을 수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으로부터 일탈하려는 욕구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즉 개인의 욕망 충족 욕구, 그것을 남성만의 전유물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사회적 윤리와 그것을 유지하려는 남성의 허위성에 대한 부정 등 서로 상반된 양가적인 감정구조가 당대 독자들의 감정 구조와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애인』의 결말 구조는 축첩이나 남성의 애욕만을 용인하는 가부장적인 사회 윤리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양가성에 벗어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자매애로 유대하거나 사회적 윤리의 모순에 적응하지 못한 남녀가 죽음을 선택하는 결말구조는 가부장적 사회 윤리의 모순을 폭로하는 전략적 거점이 된다. 이는 작가가 근대적 가치의 분열과 혼란을 겪는 당대 젊은 지식인들이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세계인식에 기대 있음을 포착하고, 그러한 세계를 변혁하고자 하는 욕망을 이상화한 결과이다. 이 작품이 동시대의 대중소설인 정비석의 『자유부인』, 작가의 『실낙원의 별』과 비교되는 지점이기도 하다.³⁵⁾ 요컨대 당대의 두 작품이 개인의 욕망을 가부장적 제도라는 지배담론의 틀 속에 귀속시켰다면, 『애인』은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방식을 취하

33) 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54쪽.

34) 김우중은 『애인』의 후속작이자 김내성의 유작인 『실낙원의 별』을 “사랑하는 사람을 쫓는 의지와 윤리적 과단을 묘사하고 참된 인생의 낙원이 어디인지를 말해준 작품”이라고 평하는데, 이는 성급한 판단이다. 작가 사후에 김내성의 딸인 김문혜가 아버지의 작품 노트를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딸의 창작의도와 독자들의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말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우중, 「심혼 김내성·함대훈」, 『현대문학』 166호, 1968.10, 343쪽.

35) 이 작품의 결말구조는 당대의 새로운 화두인 전통적인 가정 복귀론과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작가의 『실낙원의 별』에서 강석운과 고영림이 사랑의 도피 행각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서사구조, 정비석의 『자유부인』에서 오선영이 욕망을 추구하다가 가정으로 복귀하는 서사 구조와도 상이하다.

면서도 지배담론의 틀 속에 개인의 욕망을 귀속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시대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물들의 욕망과 이상을 다양하면서도 심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애인』은 절대적인 것을 부정하고 사물화되고 과편화되어 있는 현상을 세계 파악의 중요한 단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미적 모더니티에의 지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김내성, 『백조의 곡』, 여원사, 1957.

김내성, 『애인』, 『경향신문』, 1954.10.1-1955.6.30.

김내성, 『실낙원의 별』, 『경향신문』, 1956.6.1-1957.2.13, 1957.2.22-2.25, 1957.3.19-4.19.

정비석, 『자유부인』(상,하), 정음사, 1954.

2. 논문과 단행본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의식 및 문화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99, 197-308쪽.

구재진, 「한국 현대 소설의 무의식과 욕망 연구-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 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4집, 2003.12, 363-394쪽.

권용혁, 「세계화와 보편 윤리」,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제1호, 2001.4, 109-138쪽.

김상준, 「성찰성과 윤리, 한국이론사회학회, 『사회와이론』 제10집, 2007.5, 33-78쪽.

김은경, 「1950년대 여학교 교육을 통해 본 ‘현모양처’론의 특징,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19권 4호, 2007.12, 137-151쪽.

김일환, 「성적자기결정권의 헌법상 도출근거에 관한 비판적 검토, 『헌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6, 107-140쪽.

김진기, 「반공에 전유된 자유, 혹은 자유주의, 상허학회, 『상허학보』 제15집, 2005.8, 157-193쪽.

김현주, 「1950년대 여성잡지 『여원』과 '제도로서의 주부'의 탄생, 대중서사학회, 『대중서사연구』 18호, 2007.12, 387-416쪽.

김현주, 「‘아프레 갈’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1집, 2006.12, 315-335쪽.

유봉영, 「해방 후의 사회상과 그 성격, 『신세계』, 1956년 9월호, 창평사, 1956, 226-231쪽.

유영익, 「1950년대를 보는 하나의 시각, 『한국근현대사론』, 일조각, 1992, 226-265쪽.

- 이동희, 「전통 윤리와 현대의 가족 윤리 문제 ,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제54집, 1995. 5, 1-26쪽.
- 이선미, 「‘미국’을 소비하는 대도시와 미국영화 , 상허학회, 『상허학보』 제18집, 2006. 10, 73-105쪽.
- 이시은, 「전후 국가재건 윤리와 자유의 문제-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 『현대문학의 연구』 26호, 2005, 139-165쪽.
- 홍원경, 「전후소설에 드러난 욕망의 양상 , 중앙어문학회, 『어문론집』 제33집, 2005.6, 237-254쪽.
- 홍정완, 「전후 재건과 지식인층의 ‘道義’ 담론 ,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 제19호, 2008.4, 43-84쪽.
- 이블린 폭스 켈러, 민경숙·이현주 역, 『과학과 젠더』, 동문선, 1996.

Abstract

A study on represented Desire and Ethics in *Lover*,
Kim, Nae-Sung's the latter term Novel

Kim, Hyun-Ju

1950s was intensity period with inharmoniousness of social ethics and desire, because of anxiety of existence, overflowing of enjoyment egoism result of rapid inflow of American culture and etc even except physical unfavorable conditions due to the war period. *Lover* which created in this period by Kim, Nae-Sung treats young intellectual peoples' desire for love seriously from sight of view of social ethics and free will of individual.

In other words, this work realize love or sexual desire as main factor to compose family as reappearance of present through 'sein'(to be) characters such as myoungdong's style person, philosopher of sexual passion, and sincere moralist and etc, but also have negative distance with irrationalism of social ethics or systems surrounding family through 'sollen'(ought to be) characters. Especially the closing structure with creation of sisterhood and martyrdom of romantic love is arranged with control discussion which planned division of sexual ranking and region inside of family. Through this kind of ending structure that this work reflects the present which females relate on sisterhood to correspond to such only accept sexual passion of love or keeping mistress, the conflict of the social ethics of patriarch is exposed.

In the other sight of view, it means that the life of intellectual people in that period was relied on world recognition which was suspicious and critical through showing confusion & division of modern value. This work

also expresses paradoxically that rule of monogamy couldn't be legal protection inside of family system through a pair of reasonable lovers who has sexual desire and emotion of love chose death at the end due to the restriction of family system.

In short, *Lover* accept mass prologues, but deny absolute things at the same time and consider phenomenon which fragmented and mattered as important provision to realize world, and show intention to esthetic modernity. Specially, differently from other mass literacy in same period, this work represented much through that the desire of individual character is not reverted in the frame of the dominant discourse of patriarch, that the characters is encapsulated in depth that they tend to live that period sincerely and have meaningful goals. (key words: Kim, Nae-Sung, *Lover*, sein(to be), sollen(ought to be), structures of feeling, compromise equilibrium, sisterhood, martyrdom of romantic love, absoluteness, denial, esthetic modernity.)

▣ 위 논문은 2009년 4월 30일 투고되었고, 심사를 거쳐 5월 2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